

## 디지털 언어로 구축하는 조형의 신세계

### - 정령재의 공예작품

디지털기술 기반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급되면서 미술 분야에서도 그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디지털프린팅에 의한 사물 제작은 그동안의 수공기술 제작방식을 보완하거나 대체해 가면서, 복제 생산의 디자인제품 뿐 아니라, 일품 생산의 미술품과 공예품 제작에서도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제작과정에서 손기술의 활용을 절대적 조건으로 삼았던 공예분야의 경우, 디지털프린팅의 등장은 가공 방식의 확장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분야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해야할 필요성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교적 섬세하고 세밀한 사물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전통적인 수공기술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생산성과 경제성을 높일 뿐 아니라, 기존에 추구할 수 없었던 조형의 새로운 언어들을 생성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과정에서 컴퓨터를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금속공예와 장신구를 전공한 정령재 작가는 3D디자인과 디지털프린팅으로 성형하는 공예작품들을 제작하고 있다. 특히 근래에 집중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장신구는 기존의 수공작업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새로운 차원의 조형성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018년 수상한 이태리의 국제장신구 공모전 <조이엘리 페르멘토>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것을 포함해 유럽에서의 여러 주요 전시회와 국제적인 페어에 그의 작품들이 포함되고 있음은 이들 근작에서 보여주는 창의성과 이에 대한 반향을 증명하는 것이다.

정령재가 작품에 활용하는 기술은 'SLS 프린팅' 방식으로, 분말 상태의 열가소성 수지를 레이저 빔으로 녹여 특정 단면을 구현하고, 이 단면들을 적층하는 과정을 통해 3차원의 입체물을 성형하는 방식이다. 분말의 재료로부터 직접 형태를 만드는 특징으로 인해 별도의 지지대가 필요 없으며 그로인해 보다 자유로운 형태를 의도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나일론의 일종인 폴리아미드로 가벼우면서도 마모에 강하고, 탄성을 지는 촉감과 다양한 원색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장신구로서는 이상적인 재료가 될 수 있다.

초기작인 '의자 시리즈'의 경우는 여러 기하도형을 단위요소로 삼은 테셀레이션 패턴에 의해 몸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철, 황동, 나무 등이 구조적으로 결합되고 있다. 프린팅성형의 크기와 무게, 생산시간 등을 탐색한 실험작의 성격이 강하다. 가구제작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장신구 연작들은 보다 세련된 완성도를 갖추며 조형성과 시각적 이미지 모두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단위요소인 체인의 구조는 특히 창의적이다. 원, 타원, 사각 등의 고리형의 복제와 이들의 균일한 연결은 수공작업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정교함을 지니고 있어 디지털프린팅기술 활용의 당위성을 보여준다. 쏟아져 내리는 체인의 형태는 마치 폭포를 연상시키는 시각적 현란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탄성을 지닌 폴리아미드 체인의 다발이 몸 위에 착용되는 경우, 신체의 지속적인 움직임과 중력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울동감을 전달하는 효과를 지닌다. 새로운 차원의 기술과 재료가 장신구 본연의 착용성과 장식성을 새롭게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디지털프린팅을 연구하며 새로운 조형세계를 개척하고 있는 정령재의 근작들이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비교적 뚜렷하다. 장신구 분야의 경우, 그동안 주로 산업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도입되었던 이 기술이 스튜디오공예가의 개별적인 작품에도 유효한 방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수공방식으로 구현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형태와 구조, 이들이 생성하는 시각적 이미지를 근작의 시리즈를 통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용일

국민대 교수